



C.H.A.M.
Come & Help Arab Muslims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걷는 길

WITH ARAB MUSLIMS

FEB 2016
VOL.3

발행인: 김현성
편집: 정기은 디자인: 서응교
<http://www.chammission.org>
E-mail: chammission@gmail.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다시 온전한 사랑으로

이은상 목사 (C.H.A.M 이사, 은혜동산교회 담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 18-19)

두려움의 세상에 오신 온전한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일의 성취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교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온갖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자리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자리보다는 두려움의 자리로 자꾸 물러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조장합니다. 그리하여 회의, 불신, 염려, 원망, 미움, 분노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게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두려움으로 끝맺게 합니다. 선교나 사역의 현장과 같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의 두려움을 내쫓아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이 회복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고,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 선교회(C.H.A.M Mission) 모든 지체 여러분! 선교는 삶이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주님의 사랑으로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 냅시다. 특별히 더 척박한 환경인 이슬람 현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김현성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더욱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슬람의 기본이해 / 그들은 무엇을 지키는가

김현성 선교사 (C.H.A.M 대표/ 중동 J국 사역)



무슬림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모습일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무슬림들이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이슬람에서는 모든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정해 놓고,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얼마나 잘 지키고 행하였는지에 따라 알라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사후에 알라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믿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의무(다섯 기둥)를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이 다섯 기둥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근거하며 무슬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1) 첫째 기둥, 사하다(신앙고백)

무슬림들의 신앙고백인 사하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둥의 근간을 이루며, 누구든지 “하나님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la ilaha illa Allah; Muhammad rasul Allah)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긴다. 무슬림들은 태어날 때와 죽음을 맞이할 때,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회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등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에 이 신앙고백을 암송한다. 누구든 무슬림이 되고자 한다면,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 앞에서 이 사하다를 세번 고백하면 무슬림이 될 수 있다.

(2) 둘째 기둥, 살라트 (기도, 예배)

둘째 기둥인 살라트는 무슬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슬람 세계를 형성하는데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의무이다. 살라트는 해 뜨기 전, 정오, 오후, 해 진 후, 밤 이렇게 하루 다섯 번씩 올리는 예배 혹은 기도이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예배의 횟수에 관해 언급된 것이 없으나, 하루 다섯차례의 예배는 무함마드 생전에 이미 관례가 된 듯하다. 기도의 시작은 “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를 외친 후, 알 파티하(꾸란의 개경장)를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살라트를 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장소만 있으면 된다. 작은 예배용 양탄자 하나 혹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어떤 장소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향해 방향을 맞추고 해야 한다.

(3) 셋째 기둥, 자카트 (구제세)

꾸란 ‘9장 60절’에 의하면 자카트를 통해 걷힌 수입은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카트 징수원들과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몸값으로, 좋은 일을 하려다가 가난해진 사람의 빚을 갚는데, 여형 중 궁색해진 사람들을 돕는대거나 우물처럼 공익사업을 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자카트 징수는 나라마다 다르며 정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유럽에서는 보통 모스크에서 자카트를 거두어 들이는데 일반적으로 소유(현금, 예금, 보석)의 40분의 1, 즉 소유의 2.5%를 징수하며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자카트는 모스크, 학교, 병원 등의 건축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라마단후의 축제인 Eid al-Fitr(아이드 알-피트르) 때에는 Zakat al-Fitr(자카트 알-피트르)라고 하는 특별한 자카트를 드리기도 한다.

(4) 넷째 기둥, 싸움 (단식)

이슬람력에서의 9월(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 을 뜻한다. 라마단은 천사 가브리엘(Gabriel)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지며, 무슬림들은 이 기간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이러한 습관은 유대교의 금식일(1월 10일) 규정을 본떠 제정한 것인데, 624년 바두르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달로 바꾸어 정하였고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식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단식은 무슬림들이 가장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의무 중 하나이다. 1년이 354일인 이슬람 음력으로 아홉째 달에 해당하는 라마단 한 달 내내 무슬림들은 식음과 금연, 방탕류의 음미나 성행위, 심지어는 주사 맞는 것도 낯 시간에는 할 수가 없다. 병자나 생리중인 여성, 임신부나 수유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단식이 면제되나 이는 후에 다른 방법으로 보충이 되어야 한다. (노예해방, 구제 등의 방법으로) 라마단이 끝나면 무슬림들은 나흘 간 계속되는 Eid al-Fitr(아이드 알-피트르)라는 축제를 즐기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이다.

라마단의 마지막 10일간은 가장 최고로 헌신하는 시간으로 무슬림들은 그 기간 사원 안에서 머물게 된다. 보통 27 번째 되는 날을 '권능의 밤(Laylatul-Qadr(라이라툴-까드르))'이라고 하여 밤새워 기도한다. 라마단이 끝나면 무슬림들은 나흘 간 계속되는 Eid al-Fitr(아이드 알-피트르)라는 축제를 가지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이다. 라마단은 해마다 조금씩 빨라진다. 윤달이 없는 이슬람력은 12개의 태음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력보다 11~12일이 적기 때문이다.

(5) 다섯째 기둥, 하지 (성지순례)

하지는 고대 아랍 사회의 의례가 수용되어 정신적으로 승화되어진 것으로서, 성지순례가 행해지는 시기는 이슬람력의 마지막 달인 '둘-히자' 달 중이며(쑤라 2:196), 매년 약 200만명의 무슬림들이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모인다. 꾸란에 의하면 성지순례의 최종 목적지이자 무슬림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메카의 신전 Ka'ba(카바)는 아담에 의해 만들어 졌고, 노아의 홍수 때에 파괴되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의해 다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순례를 마치고 성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라는 존칭을 부여해주며, 순례 중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은 쉹히드(순교자, 신앙의 증인)로 간주된다.

무슬림들은 위의 다섯가지 의무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비록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면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 최대 미전도 종족인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

이슬람의 신앙전통들 / 시아파 vs 수니파

강해정 전도사 (C.H.A.M 스텝)

최근 언론을 통해 중동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이슈의 내용들을 듣다 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수니파' 와 '시아파' 라는 이슬람의 두 종파의 이름이다. 우리는 그들의 특징과 사상, 추구하는 목적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해 적대적으로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종교지도자 사형문제로 국교 단절을 했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반군과 정부군이 계속 대립하며 싸우는 중에 IS가 많은 지역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세계가 IS를 제거하기 위한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는 IS를 대하는 중동국가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또 이러한 중동의 국가들을 대하는 서방국가들의 입장도 다르다. 이처럼 중동의 정세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슬람 종파인 '시아파' 와 '수니파'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슬람의 출발은 61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Muhammad, 570~632)가 알라의 계시를 받은 후, 613년부터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설파하며 39명의 신자들을 확보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메카에서 반대에 부딪힌 무함마드는 622년 메디나로 이주(Hijra)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슬람력의 기원이 된다. 메디나로 이주 한 후에도 포교의 길은 험난했으나 무함마드는 부족 간의 유혈 복수전을 종속시키고 교세를 확장하여 첫 신정국가 체제인 이슬람 공동체 '움마(Ummah)'를 건설했다. 무함마드는 알라(Allah)를 하나님으로, 자신은 알라의 대리자로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던 무함마드는 632년 메카 순례 이후 아라파트 산에서 마지막 고별연설을 한 후 이슬람의 승리를 선포하고 6월에 임종하였다.

하지만 무함마드 사후, 지도자가 정치와 종교를 함께 관장하는 신정국가 형태인 이슬람은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심각한 내분과 갈등만을 직면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Abi Bakr, 632~634), 2대 칼리프 우마르 이븐 알 카타브(Umar ibn al-Khattab, 634~644), 만 3대 칼리프 우스만 이븐 아판(Uthman ibn Affan, 644~656), 4대 칼리프 알리 이븐 아부 탈리브(Ali ibn Abu Talib, 656~661) 등은 이슬람의 체계를 정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이슬람을 세계적 종교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661년 1월 24일 칼리프 알리의 암살로 이슬람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시작된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는 3대 칼리프 우스만이 살해당한 이후 656년에 칼리프가 되었다. 우스만의 통치하에서 칼리프가 다스리는 영토는 넓어졌지만, 정복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돈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우스만에게 반대하는 이들이 늘었던 것이다. 아랍인들이 제국의 전리품을 두고 다투는 사이, 많은 무슬림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잊어 갔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칼리프 자리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족들에게만 한정되어야 이슬람이 가장 순수해질 수 있다고 믿는 무슬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시아투 알리'(알리의 파), 즉 '시아'라 알려지게 되었다. 알리가 칼리프 자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가 권력을 얻은 방식은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남겼다. 그는 곧 우스만의 사촌 무아위야가 일으킨 반란에 직면하게 되었고 무아위야는 알리가 자신의 동족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기를 거부하며 무슬림과 무슬림의 무력충돌로 이어졌다. 칼리프 제도 자체를 부정했던 카와리지 파는 알리와 무아위야를 둘 다 살해하려 계획했으나 알리만을 살해하였고, 무아위야는 칼리프가 되었으며, 그의하 추종자들은 아랍어 '순나(예언자의 모범)'에서 온 명칭인 '수니'라 불리게 되었다. 알리를 따르던 이들은 그의 아들 하산에게

충성을 바쳤고, 이는 지속적인 이슬람의 불화를 낳았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아파(Shia)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혈통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위 알리가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시아파는 종교 지도자 이맘(imam)은 지상에서 신적 권위와 무오류성을 갖고 있으며, 최초의 이맘은 알리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무슬림 가운데 시아파는 약 1억 5천여 명으로 10~15%가 12이맘 시아파에 속한다. 시아파(12이맘파)는 이란과 이라크에 많이 거주한다. 시아파는 수니파와 달리 종교가 정치를 장악해야 한다는 급진주의로 전체 무슬림의 약 10~15%를 차지하며, 특히 이란 국민은 대부분 시아파에 속한다. 이란에서 호메이니(Ayatollah Oama Ruhollah Khomeini, 1902-1898)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슬람 시아파의 영적 권위의 '이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수니파(Sunni)는 칼리프는 선출을 통해 계승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수니는 순나(Sunna)의 뜻인 '관습'이나 '예언자의 모범'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수니파는 이슬람 초기 네 명의 칼리프를 모두 적법한 지도자(al-rashidun)로 믿는다. 이 시기는 꾸란의 도덕적 가르침이 지배했고, 갈등과 투쟁 속에서도 '알라의 길(fi sabil Allah)'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 이후에 어떤 후계자도 능력과 본질에서 무함마드를 계승할 수 없고 다만 공동체 수장의 권위만 가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니파는 이슬람 공동체를 공고하게 묶어주는 율법인 샤리아를 발전시켰다. 현재 수니파는 무슬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그 대표적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90%)와 이집트(90%)이다.

이라크의 사담후세인(Saddam Hussein),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그리고 현재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도 모두 수니파이다.

중동 이슬람국가 종파 분포



〈출처: 국민일보 2014. 06. 16, [이슈분석-종교전쟁 치닫는 이라크] 중동국가 내전 뿌리〉

차이	수니파	시아파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칼리프) 선정	지도부의 합의·선출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의 딸(사데 칼리프)과 그 아들 후세인(무함마드의 외손자) 등을 통해 혈통으로 12대 이맘까지 승계. *시아파는 알리의 '당파' 이란 뜻.
후계자의 권위	공동체가 부여한 신뢰에 기반. 잘못된 후계자는 축출 가능.	이맘은 알리와 무함마드에 의해 선정. 인간의 죄가 없음.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대한 견해	경전 코란에 이어 신뢰	하디스는 무함마드 死後 시아파가 '정통 후계자'로 보지 않는 23대 칼리프와 주변 인물들에 의해 기록된 불신앙
공동체	알리만이 唯一神. 무함마드는 알리의 마지막 예언자. 코란은 알리가 인류에 준 마지막 경전.	
전세계 무슬림 중 비율	85%·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과 동남아 이슬람권의 대부분 시아파를 '이단' 취급	15%·이란, 이라크에 서민 다수. 예멘·바레인·시리아·레바논에서 상당한 소수세력 형성

〈출처: <http://hopergy.tistory.com/2044>,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분열이유, 특징 & 분쟁배경〉

그러나 이슬람의 전통주의자든 개혁주의자든 혹은 시아파이든 수니파이든 모두 초기 공동체 시대에 이슬람의 기본적인 이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에서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신앙적 갈등과 대립은 그 뿌리가 깊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처럼 복잡한 중동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자 영적 전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 정권의 수쿠르법 사태 이후 현 정부의 할랄식품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IS가담, 유학생 파견을 통한 포교활동 등 이슬람의 한국 침투가 본격화 되고 있음에도,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너무 길이가 먼 것이 현실이다. 이슬람을 바로 이해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며, 또 그들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여, 한국 교회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김정준, “IS 테러리즘과 한국교회 청소년 영성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제44집, 2015.

국민일보, [이슈분석-종교전쟁 치닫는 이라크] 중동국가 내전 뿌리 ‘수니·시아파 반목’, 2014. 06. 16.

정규진, [월드리포트] 1000년 묵은 갈등인가? 수니파와 시아파, SBS 뉴스, 2015.03.25

_____, <http://hopergy.tistory.com/2044>,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분열이유, 특징 & 분쟁배경

C.H.A.M Mission 소식 및 기도 나눔



1) 2015년 C.H.A.M 이사회 정기총회

2015년 11월 26일(목)에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1부 순서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2015년을 결산하는 '사역보고 및 재정보고'와 2016년도 '예산안 및 선교회 관련 안건'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선교회 명칭 변경

지난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기존 선교회 명칭인 'C&H A.M MISSION'을 'C.H.A.M MISSIO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교회의 발전과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스텝 구성

저희 리서치 담당 스텝이었던 최미화 전도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 선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 선교회에서는 함께 동역하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최미화 전도사의 사역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티미디어팀에 최봉은 자매님께서 저희 스테프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최봉은 자매님은 웹디자이너로 저희 홈페이지 구축 작업에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C.H.A.M MISSION 회원 및 후원자 모집

본 선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로 물질로 또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교회의 소식지와 중동 아랍 무슬림 사역에 관한 정보를 요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더 많은 중보 기도와 재정 후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사 후원 : 정기총회 시 일괄보고

개인 후원 :

김위식, 김현성, 김현진, 노운태
명유정, 박희선, 이난희, 이숙영
이영배, 이윤이, 임지아, 하승연

김샘의 이슬람 TIP



C.H.A.M 이사회

이사장 : 박동석 목사(감동교회)
고 문 : 강정식 목사(새성남교회),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총 무 : 박형진 목사(햇불트리니티신대원)
서 기 : 손병규 목사(헤브리치치)
감 사 : 최환열 집사(온누리교회)
이 사 : 김만석 장로(감동교회), 김석한 목사(평강교회),
김현덕 집사(영광교회), 남형열 목사(주님교회),
류종상 목사(작전중앙교회), 문단열 전도사(어메이징그레이스교회)
박순규 목사(밀알교회), 박종찬 집사(감동교회),
박진선 집사(감동교회), 박진우 집사(주영광교회),
박희철 목사(함께하는가정운동본부),
신일수 집사(감동교회), 신현 목사(강은교회),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윤동희 목사(소망의빛교회),
이규한 목사(목양교회), 이은상 목사(은혜동산교회),
이호석 집사(감동교회), 장홍모 장로(감동교회),
정진오 목사(금밭교회), 최복용 목사(호산나교회),
추종식 목사(법인재단하늘채), 하두형 목사(영국침블던한인교회),
한규동 목사(남문교회) 이상 가나다 순

C.H.A.M 스텝

대표 : 김현성
총무 : 강해정
행정/재정 : 전영주
문서/편집 : 정기은
회원 관리 : 정연심
디자인 : 서응교
미디어 : 손미정, 최봉은

아랍 무슬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come & Help Arab Muslims

후원방법1: 1 + 1 + 1 후원

월 1만원 재정후원 + 1일 1분 기도후원

후원방법2: 자물후원 (월 자동이체)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24701-01-412754 / 예금주: 김현성(C&H A.M MISSION)

-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에 대한 영수증,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장기선교사 훈련모집

장소 : 요르단

기간 : 2년

절차 : 서류 전형/ 사전 인터뷰/ 현장 리서치(약 2주)/ 최종 인터뷰/ 훈련 참여

* 훈련 참여가 결정 되면 이사회를 거쳐 본 단체 파송 선교사로 허입 됩니다.



C&H A.M 은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구호 아래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헌신된 단체입니다.

이메일 | chammission@gmail.com

홈페이지 | www.chammission.org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2-92058

선교회 연락처 | 010-8730-8624 (강해정 총무)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